-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

#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경 기 도 의 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가중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인구 관련 우수정책 및 도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우수사례 확인, 경기도 적용가능 정책사례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

## Ⅰ 출장개요

### □ 개 요

○ 기 간 : 2023. 5. 9.(화) ~ 5. 16.(화)【6박 8일】

○ 국 가 : 독일, 오스트리아(2개국)

○ 인 원 : 19명

- 도의원 11명, 전문위원실 4명, 집행부 및 공공기관 3명, 언론사 1명

※ 집행부 및 공공기관 별도 계획 수립 및 출장경비 소속기관 자체 부담

### □ 이동경로

○ **독일(프랑크푸르트→비스바덴→하이델베르그→뮌헨) ⇒ 오스트리아(비엔나)**



## □ 출장자 명단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도의원(11명)

| 연 번 | 직 위 | 성 명 | 연 번 | 직 위 | 성 명 |
|---|---|---|---|---|---|
| 1 | 위원장 | 지미연 | 7 | 위원 | 이채명 |
| 2 | 부위원장 | 김철현 | 8 | 위원 | 정경자 |
| 3 | 부위원장 | 이동현 | 9 | 위원 | 정승현 |
| 4 | 위원 | 김근용 | 10 | 위원 | 최 민 |
| 5 | 위원 | 서정현 | 11 | 위원 | 최병선 |
| 6 | 위원 | 이병숙 | | | |

❍ 기획재정전문위원실(4명)

| 연번 | 직위(직급) | 성 명 | 비 고 |
|---|---|---|---|
| 1 | 수석전문위원 | 이태헌 | |
| 2 | 의정지원팀장 | 박치석 | |
| 3 | 주무관 | 박원아 | |
| 4 | 주무관 | 김은숙 | |

❍ 집행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4명)

| 연번 | 소 속 | | 직위(직급) | 성 명 | 비 고 |
|---|---|---|---|---|---|
| 1 | 경기도 |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 행정4급 | 박성환 | |
| 2 | |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 행정4급 | 조장석 | |
| 3 | 공공기관 | 경기연구원 | 연구위원 | 이성우 | |
| 4 | 언론 | 경인일보 | 기 자 | 박 건 | |

## □ 주요 세부일정

| 날 짜 | 장 소 | 시 간 | 일 정 |
|---|---|---|---|
| 1일차<br>05/09(화) | 인 천 | 11:05~17:40 | 인천공항 출발→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
| | 프랑크푸르트 | 18:30 | 석식 및 휴식 |
| 2일차<br>05/10(수) | 프랑크푸르트 | 09:30 | 프랑크푸르트→비스바덴 이동 |
| | 비스바덴 | 10:00~12:00 | ▸**【공식방문】 독일 연방 통계청**<br>- **접견자 : Jasmin Passet-Witting**<br>- **인구 통계 분석자료를 활용한 정책 수립방안 모색** |
| | 하이델베르크 | 14:00 | 이동(비스바덴 → 하이델베르크) 및 문화시찰 |
| | | 18:00 | 석식 후 휴식 |
| 3일차<br>05/11(목) | 하이델베르크 | 09:00~11:00 | 공식 기관방문 대비 사전 간담회 |
| | | 12:00~17:00 | 중식 및 이동(하이델베르크→뮌헨) |
| | 뮌 헨 | 18:30 | 석식 후 휴식 |
| 4일차<br>05/12(금) | 뮌 헨 | 09:00~11:00 | ▸**【공식방문】 바이에른 주 의회**<br>- **접견자 : Hans Friedl**<br>- **방문목적 : 의회운영 및 주요 법령 제정현황 등 정보교환, 우수정책 및 상호 교류방안 등 논의** |
| | | 14:00~16:00 | ▸ **【공식방문】 메세슈타츠 리엠**<br>- **접견자 : Johann Hartl**<br>- **방문목적 :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유입·시설개선·소득증대 등을 위한 방안 모색** |
| | | 16:00 | 이동(뮌헨→비엔나) |
| | | 18:00 | 석식 후 휴식 |
| 5일차<br>05/13(토) | 비엔나 | 13:30~16:30 | ▸**【현장시찰】 가소메타 시티**<br>- **접견자 : Andreas poschek**<br>- **방문목적 : 기존(가스저장) 시설을 활용한 사례 현장방문을 통한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사업 추진 등 개선방안 모색** |
| | | 18:00 | 석식 후 휴식 |

| 날 짜 | 장 소 | 시 간 | 일 정 |
|---|---|---|---|
| 6일차<br>05/14(일) | 비엔나 | 09:00~11:00 | 자체 간담회(기관별 논의사항 결과 공유 등) |
| | | 14:00 | 현지 문화시찰 |
| | | 18:00 | 석식 후 휴식 |
| 7일차<br>05/15(월) | 비엔나 | 09:30~11:00 | ▸**【공식방문】 니더회스터라이히 란드탁 주의회**<br>- **접견자 : Christoph kaufmann**<br>- **방문목적 : 의회운영 및 주요 법령 제정현황 등 정보교환, 우수정책 및 상호 교류방안 등 논의** |
| | | 13:30~15:30 | ▸**【공식방문】 비엔나 인구학연구소**<br>- **접견자 : Isabella Buber-Ennser**<br>- **방문목적 : 의회운영 및 주요 법령 제정현황 등 정보교환, 우수정책 및 상호 교류방안 등 논의** |
| | | 15:30 | 비엔나 공항 이동 후 수속 |
| | | 18:40 | 비엔나 공항 출발 |
| 8일차<br>05/16(화) | 인 천 | 12:30 | 인천공항 도착 |

## Ⅱ 출장배경 및 목적

### □ 인구정책 분야

○ ’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수는 24만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경기도 역시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계속 하락 중**이며 총인구수는 2039년(1,479만명) 정점 이후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도 2024년(1,005만명) 정점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이탈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역소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 동두천시·포천시는 관심 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심각한 인구위기에도 국가와 지방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 정책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음.

⇒ **인구위기는 국가존립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

⇒ **출산, 돌봄, 고령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사례 확인**

⇒ **경기도 인구정책 전환을 위한 필요사업 연구**

⇒ **중앙정부 인구정책의 보조역할을 넘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형 맞춤 인구전략 제시**

□ **균형발전 분야**

○ **경기도의 북부지역은** 도농결합의 지역적·산업적 특징, 수도권 남북구분, 군사·상수도지역 등 **각종 규제중첩*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제약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환경 저하로 남부지역 대비 지역 간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 ① 수도권정비계획 규제 ②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③ 개발제한구역 규제 ④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등 남북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나 **넓은 지리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지역 간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북부의 인구는 남부의 34%에 불과하며, 지역총생산규모는 21%, 제조업체 수는 남부 대비 30% 수준에 불과함.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시 쇠퇴 지역에 대한 재생 사례 확인**

⇒ **도시 활성화(재생) 사업 추진 시 주안점 및 특성화 방안 연구 (시민과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화 개선방안 연구)**

⇒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분석**

⇒ **낙후원인(지역특성)에 특화된 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 조사·발굴**

⇒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 Ⅲ 방문국가 일반현황

## □ 독 일

| | |
|---|---|
| 수 도 | 베를린(Berlin, 약 364.5만명) |
| 인 구 | 약 8천 370만명 (세계 19위) |
| 면 적 | 357,386km2 (한반도의 1.6배) |
| GDP | 약 4조 2,231억 1,621만 달러 (세계 4위) |
| 주요도시 | 본(Bonn),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
|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
| 주요언어 | 독일어 |
| 종 교 | 신교(18%), 구교(16.2%), 이슬람교(3.9%), 무종교(60.8%) |
| 통 화 | 유로 EUR |



❍ 개요

장난감처럼 예쁜 도시와 아름다운 호수, 변화 있는 산악 지대를 볼 수 있는 독일은 9C 중엽에 분열된 프랑크 왕국 중 동프랑크 왕국에서 비롯된다.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 1제국인 독일 연방국이 형성되었다가 수많은 국가로 나뉘었으며, 1871년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하였다.

1933년에는 제3국인 히틀러 나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으나 1945년 패전 후 동서로 양분되었다. 1972년에 이르러 동,서독이 UN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1990년 10월3일 동서 화해의 기류를 타고 역사적인 재통일을 이루었다.

통일 이후 약간의 경제적 혼란을 겪었으나 주요산업인 자동차, 화학산업을 기반으로 건실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지리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전체 면적은 357,000㎢(한반도의 1.6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호 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 형태는 16개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1990.03.18.자 구동독 인민의회의 결정으로 동독지역이 1990.10.03.자로 독일연방공화국에 통합되어서 메클렌부르크-훠어펌먼, 브란덴부르크,작센-안할트, 튀링엔, 작센주가 생기고 이 주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가 되었다. 동베를린 11개구는 베를린주에 편입되었다.

❍ 기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는 샤프트케르테라 불리우는 추운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로 서늘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간단한 스웨터를, 봄.가을에는 따뜻한 자켓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코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프랑크푸르트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기온(˚C) | 1 | 2 | 6 | 8 | 13 | 16 | 18 | 18 | 15 | 10 | 5 | 2 |
| 강수량(mm) | 45 | 40 | 53 | 58 | 60 | 73 | 60 | 73 | 53 | 55 | 58 | 55 |

❍ 행정구역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위의 설명과 같이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그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16개 광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政菅區), 자치시(Kreisfreie Stadt, 自治市), 군(Kreis, 군), 게마인데(Gemeinde, 邑.面.洞)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 경제

독일의 경제규모(명목 GDP)는 4조 2,628억불(2021년) 규모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독일은 유럽국가중 최대인 GDP와 인구, 교역 및 자체시장 규모만으로도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유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구권 진출을 위한 거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단, 시장규모에 비해서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2021년도 기준 가계소비 49.2%, 정부소비 22.1%)

독일의 최대 산업분야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산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26.6%로 미국, 영국 등 영미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높은 생산성 및 탁월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제조업 기업은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 독일의 경기침체과정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대외 경쟁력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독일에는 총 약 335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전체 기업수의 99.3%, 전체 고용시장의 54.4% 및 전체 기업 매출의 33.7%를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중추적 기능 수행하고 있다.

## □ 오스트리아

| | |
|---|---|
| 수 도 | 빈(Wien, 191만명) |
| 인 구 | 약 890만명 (세계 99위) |
| 면 적 | 83,879㎢ (한반도의 약 2/5) |
| GDP | 약 4,770억 8,247만 달러 (세계 30위) |
| 주요도시 | 빈(Wien), 인스부르크(Insburg)<br>짤스부르크(Salzburg) |
| 주요민족 | 오스트리아계 |
| 주요언어 | 독일어 |
| 종 교 | 카톨릭(60%), 개신교(2%)<br>이슬람교(8%) |
| 통 화 | 유로(EUR, €) |



❍ 개요

국명이 '동쪽의 나라'라는 뜻의 '외스터라이히'에서 비롯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되었으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 유럽을 지배하였다.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건설하여 지금의 동부유럽 및 소련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에 패함으로써 국토는 전쟁 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차 세계 대전에도 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으로 독립하였다.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업이며, 알프스 산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 지리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63.855㎢로 서쪽 지역은 골짜기의 깊이가 450-750m, 해발 2,400-3,600m 높이의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 지역은 산의 높이가 해발 1,600-2,400로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산맥을 기점으로 남, 북으로 조그만 언덕들이 형성되어 있다. 제일 낮은 도나우 골짜기와 오스트리아 동쪽의 해발고도는 180-250m이다.

❍ 기후

동부지역은 대륙성 기후, 서부지역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6-8월)의 평균기온은 20-25℃이며 겨울(11-3월)의 평균기온은 -5℃정도이다. 10월에서 12월에 걸쳐 강수량이 많으며, 11월 하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3월까지 많은 적설량이 기록된다. 겨울에는 습기가 많아 상당히 추우며, 전체적으로 겨울을 제외하면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평균기온(˚C) | -1.4 | 0.4 | 4.3 | 9.6 | 14.5 | 17.7 | 19.6 | 18.9 | 15.1 | 9.7 | 4.0 | 0.3 |
| 최고기온(˚C) | 2 | 3 | 9 | 13 | 19 | 22 | 25 | 25 | 20 | 13 | 6 | 3 |
| 최저기온(˚C) | -2 | -2 | 1 | 5 | 9 | 12 | 15 | 15 | 11 | 6 | 1 | -1 |

❍ 사회/문화

오스트리아의 총인구는 7,500,000명으로 대부분이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계나 유대계 등도 일부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나 발음이 독특하여 표준 독일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영어도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카톨릭은 오스트리아인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검소한 생활양식을 나타낸다.

오스트리아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로 재창조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음악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 Ⅳ 주요 활동내용

## 1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연방통계청**

◇ 기관 소개

- 독일 연방정부의 중앙통계기관으로, 독일 내 모든 지역에서 수집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담당. 이를 통해 정부,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
- 1953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독일 내 13개의 주에서 운영되는 지사를 비롯하여 외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음.

- 주요 업무 : 인구, 경제, 노동, 사회,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통계 정보 제공, 통계 조사 수행

◇ **소재지** : Statistisches Bundesamt, Gustav-Stresemann-Ring 11, 65189 Wiesbaden

◇ **연락처** : +49-611-75-4650

◇ **홈페이지** : Andrea.Vermeer@destatis.de

### □ 개 요

❍ 일 시 : ’23. 5. 10.(수) 10:00 ~ 12:00

❍ 면담자 : Dr. Jasmin Passet-Witting (재스민 파셋위티그 박사)

※ 동석자 : 안드레아 페어 메어(국제통계교류 총부장), 프라워 좀머(인구 통계 실무자)

❍ 목 적

- 경기도 맞춤 통계자료 작성·분석의 필요성 논의
-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 방안 모색

## □ 주요 논의 내용(질의·답변 등)

| | |
|---|---|
| **질의 1** | **독일연방통계청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로 알고 있음. 인구와 관련한 통계자료 수집 방법 등의 시스템(체계)은?** |
| **답 변** | 독일에는 **주연방 통계청과 각 주정부 통계청이 별도로 존재**함.<br><br>**주정부 통계청은** 주정부내의 개별 산하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통계자료 작성 및 검수 후 최종적으로 연방 통계청에 자료를 제공**함. 그리고 **연방 통계청은 각 주정부의 통계자료를 다시 수집·분석하여 최종 자료를 작성하는 시스템임.**<br><br>인구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양한 산하기관과 협조를 통해 취득**함.<br><br>예를 들어 출산율 부분은 출산·사망·혼인 신고기관, 인구 이동 부분은 전입·전출 신고기관, 이혼 부분은 법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얻음.<br><br>**각 정보들이 취합되면 통계청 내에서 각 파트 업무별로 인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작성**함. 주요 통계자료는 매달 작성하며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연 단위로 작성되고 있음. |

| | |
|---|---|
| **질의 2** |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 따라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독일의 인구정책의 주안점은?** |
| **답 변** | 독일의 경우는 1960년대 출산율이 높았으나 60년대 이후 급격히 출산율이 감속하였음. 다행히 **현재 독일은 현재 출산율은 1.6명을 유지**하고 있음.<br><br>사실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지금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br><br>즉 경제적·제도적 지원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가정에서의 아이 출산이 높아진다고 보고 그쪽 분야로 연구 및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음. |

| 질의 3 | 독일의 인구정책 중 재정적 · 제도적인 대표 정책이 있다면? |
|---|---|
| 답 변 | 먼저 **재정적 지원**으로 **자녀 출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자녀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br><br>또한 2007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한 8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이후 1년까지 부모 중 1명에게 1년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도화** 하였음. **(출산 전 수입의 70%까지 지급)**<br><br>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약서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br><br>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받고, **회사는 정부의 비용부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얻는 대신 일자리 제공의 의무를 수행**함.<br><br>그리고 **유치원 취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Kita)을 국가주도로 신설**하여 **부모의 일과 육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질의 4 | 출산·결혼에 있어 최근 독일의 경향과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은? |
|---|---|
| 답 변 |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젊은이들은** 결혼 후 아이 출산보다 **아이를 먼저 출산하고 가정을 꾸리려는 경향이 강함. 미혼출산의 비율의 독일 전체 출산의 1/3을 차지(약30만명)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br><br>미혼 출산은 독일의 경우 옛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지역보다 높으며 유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북유럽이 높음. 따라서 **미혼 출산 자녀에 대해 차별이 없는 정부지원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br><br>또한 독일은 **이민정책에 있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br>독일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년 107만 사망에 80만의 출생으로 20만의 순감소가 발생하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경험하였으나, **2015년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유입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0만이 유입**되면서 인구감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음.<br><br>**외국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실현, 전통적 가족 관념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인구정책을 계속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 |

| 질의 5 | **독일의 경우 출산율 개선 통계자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감소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
|---|---|
| 답 변 | 지역별 인구 증감의 차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독일의 통일임.**<br><br>**통일 이후 동독의 젊은 층**은 일자리와 경제력이 풍부한 **서독의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했음.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에는 64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서독지역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음.**<br><br>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서독 지역과 무관하게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도시의 인구구조는 상대적으로 젊으며 그 수도 많은 반면, 지방의 인구구조는 고령인구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인구수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br><br>과거에는 지방 소도시에서는 인구가 유출되더라도 대도시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에는 대도시와 소도시를 불문하고 출산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의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br><br>**대도시는 인구의 집중으로 기업 및 산업체 수 증가와 그와 관련한 기반시설이 계속 확충되지만 주거공간 부족, 물가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학교, 병원, 문화시설의 감소 등 기반시설 공급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br><br>향후에는 전체 인구의 유지뿐 아니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임.** |

| 질의 6 |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한 정책들을 펼쳐왔음. 경기도에 조언을 해 준다면?** |
|---|---|
| 답 변 |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br><br>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본인의 삶이 만족도가 높아야 함.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함.<br><br>그리고 독일의 **'독일연방인구소'처럼 인구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설립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우리 통계청은 인구연구소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과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그리고 정책·법률을 입안하는 정치가들과 협업하는 시스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임. |

## □ 기관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정책 설명</td><td>질의응답</td></tr>
<tr><td>
</td><td>
</td></tr>
<tr><td>기념품 전달</td><td>기념 촬영</td></tr>
</table>

## 2 바이에른주 의회(Bayerischer Landtag)

**바이에른주 의회**

◇ **기관 소개**

- 바이에른주는 독일 16개 연방주(Bundesland) 중 하나로 독일 가장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뮌헨을 주도로 삼고 있음. 바이에른 주의회는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205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법안 검토, 조사 수행, 본회의를 위해 자문을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주의회의 비전은 시민의 안전 보장과 시민의 행복 추구임.
  바이에른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사회 정의, 환경을 고려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고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함.
- 바이에른 주의회의 역할과 기능
  - 입법 기능 : 법률, 규정 및 지침 제정(법안 발의, 토론, 승인)
  - 예산 기능 : 주 예산을 승인, 모니터링
  - 감독 기능 : 주 정부의 활동을 감독(질의, 조사, 정보요구 등)
  - 대표 기능 : 시민의 청원, 건의,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

◇ **소재지** : Maximilianeum Max-Planck-Straße 1, 81675 München

◇ **연락처** : +49 89 4126-0

◇ **홈페이지** : www.bayern.landtag.de

### □ 개 요

❍ 일 시 : ’23. 5. 12.(금), 09:00 ~ 11:00

❍ 면담자 : Hans Friedl (한스 프리들 의원)

❍ 목 적 :

- 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방안 등 논의
- 인구정책 등 주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우수사례 의견 교환

## □ 주요 논의 내용(질의·답변 등)

| | |
|---|---|
| **질의 1** | **간담회에 앞서 먼저 경기도의회 방문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 그리고 바이에른주 의회 회의장 등 건물 내부에 대해 안내해 주셨는데 웅장한 느낌과 더불어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임.** |
| **답 변** | **경기도의회의 방문을 환영**하고 만날 수 있어 기쁨. 간담회에 앞서 건물 내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인상적으로 보셨다니 감사함.<br><br>바이에른주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막시밀리언 2세가 건축한 건물**로 그 당시 이 지역은 최하의 계층이 살던 곳이었으나 건물과 길을 정비하여 건축하였음.<br><br>**바이에른 주의회는 1818년 1차 대전 이후 구성**되었고, 1949년 **지금의 건물로 이주**하였음. 별도 재단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의회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음.<br><br>가능하면 **과거의 역사적 유산과 기록물들을 보존하면서 사용**하려 하고 있음. |

| | |
|---|---|
| **질의 2** |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사와 의원은 별개의 선거로 구성되고 현재 경기도의회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동석을 이루고 있음. 독일의 의회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에른주 의회의 경우, 각 당의 협조방식은 어떤지?** |
| **답 변** | **바이에른주 의회는 다수의 정당(총 6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음.<br>그래서 현재 **제1당인 기독사회당이 제3당인 자유유권자연합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205석중 101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주요 정책 통과에서는 사안별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br><br>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정당별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다르고 법률 입안과 정책 실현 등에 있어서도 입장이 상이함.**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도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4개 정당에 속해있는 의원님들이 나와 있음.<br><br>저희도 경기도의 사례를 듣고 정당별 주요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함. |

| 질의 3 | 경기도의 인구는 약1,400만임. 다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 바이에른주의 상황은 어떠한지? |
|---|---|
| 답 변 | **바이에른주 인구는 1,300만명으로 경기도와 유사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br><br>다만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의 3/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현재 독일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도 인**구 감소와 고령층 인구 비율 증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 질의 4 |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6명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보임.<br>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
| 답 변 |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개방적 이민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음.<br><br>먼저 **유아원 설립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 과거에는 유치원 이전의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는 유아원이 부족하여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유아원을 설립을 통해 부모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성의 양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였음.<br><br>두 번째는 **주택정책**이 있음. 바이에른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주거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br><br>또한 **포용적·개방적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민자들이 기존의 거주민들과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일자리 알선·주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 | |
|---|---|
| **질의 5** | **경기도는 주택의 가격이 높고, 그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층이 상당수 있음. 그리고 결혼 기피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기도 함. 의회는 다양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의 기능이 주요 역할인데 앞서 설명해주신 주택정책 부분 중 입법 부분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함.** |
| **답변 5** | 먼저 **바이에른주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이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주 개념을 중심으로 한 주택의 개념**과 **정부가 주민의 거주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br><br>또한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가구의 세후 소득의 1/3 이상이 집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월세를 자의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음.<br><br>또한 **주택건설 시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정책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주거지 건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br><br>**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자가 보유율이 낮은 편**이며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br><br>다만 **최근 바이에른주에서도 다주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부패자금 그리고 유럽의 범죄 등에서 발생한 지하경제 자금의 돈세탁 등을 위해 부동산에 투기자금으로 계속 유입되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 | |
|---|---|
| **질의 6** | **다시 한번 환대에 감사드림. 경기도의회에는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와 친선연맹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있음. 바이에른주 의회와도 향후 계속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임.** |
| **답 변** | 경기도의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저희로서도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었음.<br><br>우리 입장에서도 **독일 이외에 특히 유럽이 아닌 타 대륙의 지방정부의 법률 입안시스템 등 각종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br><br>향후 서로 계속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6월 경 바이에른주의회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인데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고 싶음. |

## □ 기관방문 사진



정책 설명



질의응답



기념품 전달




기념 촬영

## 3 메세슈타츠 리엠(Messestadt Riem)

**메세슈타츠 리엠**

◇ **방문지 소개**

- 메세슈타츠 리엠은 독일 뮌헨에 위치한 거리로 친환경 측면을 고려한 도시 개발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 시스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발달 되어 있어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을 줄여 친환경적인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곳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 내 건물설계는 친환경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 높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소재지 :** Paul-Henri-Spaak Str.5, 81829 Muenchen

◇ **연락처 :** +49-89-6809 4542

◇ **홈페이지 :** www.hessischer-landtag.de

### □ 개 요

❍ 일 시 : ’23. 5. 12.(금), 14:00 ~ 16:00

❍ 면담자 : Dr.-Ing. Johann Hartl (요한 하틀 박사)

❍ 목 적 : 친환경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도시재상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유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 주요 논의 내용(질의·답변 등)

| | |
|---|---|
| **질의 1** | **먼저 경기도의회 대표단을 환영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림. 이곳을 방문한 주요 이유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군부대 이전, 거주자 감소 등으로 유휴부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메세 슈타츠 리엠의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이곳의 건설 추진과정과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함.** |
| **답 변** | **메세슈타츠 리엠 부지는 뮌헨 공항이 위치해 있던 장소**임.<br>**뮌헨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서 유휴부지**로 남게 된 이곳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그 결과 **뮌헨 무역박람회 개최장소 확보와 도시 내 주거, 상업, 여가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음.<br><br>가장 큰 목표는 **친환경 측면을 고려한 거주공간 조성**이였음.<br>지금은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조성이 일반적이지만 메세슈타츠 리엠을 개발하려던 9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br><br>그 결과 **메세슈타츠 리엠 난방의 70~80% 지열발전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고, **건물 옥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전기 사용의 일정 부분을 해결**하고 있음.<br><br>또한 **전체 부지의 50%를 녹지지역으로 할당**하였음. |

| | |
|---|---|
| **질의 2** | **메세슈타츠 리엠지 지역 내 지구 활용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답 변** | 메세슈타츠 리엠은 독일 뮌헨 도심에서 약6~7㎞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지구(약16,000명), 상업지구(13,000명), 녹지지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br><br>예를 들어 상업지구에는 기존 공항청사와 관제탑 등을 활용한 각종 사무실과 연회장이 위치해 있음. 또한 뮌헨시에서 조성해 놓은 전시장은 독일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전시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음. 그리고 쇼핑몰 조성해 통해 거주인구의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외부 인구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br><br>참고로 주거지역의 전체 주택 중 1/3은 저 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1/3은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층을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여 이용되고 있음. |

| 질의 3 | **메세슈타츠 리엠은 저탄소 녹색 도시의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음. 친환경측면을 고려한 공간 및 건축물 등의 설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
|---|---|
| 답 변 | **녹지축 바람길 등 친환경적인 설계요소를 적용**하였음. 먼저 녹지공간을 확보 후 지**역계획에 필요한 기본 그리드(격자형식 무늬)를 설정하여 공간절약 계획 수립**하였음. 또한 **개인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도보나 자전거로 도시 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음.<br><br>그 이외에 대규모 공원 등에는 **투수포장 기술을 이용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수에 대비**하였음. 풍부한 녹지 및 단지 내 투수포장은 폭우 시 **급속히 늘어나는 빗물의 흐름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 및 침투된 빗물의 충분한 저장이용으로 토양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고 도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br><br>또한 **건축물에는 "Compact City" 개념을 적용한 블록형 배치로 폭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였고, 건물 배치 시 **바람길에 따라 주변 건물 높이와 건축물의 방향을 규제**하였음.<br><br>그리고 대부분의 건물 옥상 등에 녹화작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집**수된 빗물 등은 화장실 용수 및 세탁용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음. 즉 **건축디자인 및 공기·배수 순환시설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 질의 4 | **메세슈타츠리엠은 뮌헨시내에서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뮌헨시의 교통정책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
| 답 변 | **뮌헨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모범도시로 평가받고 있음,<br>**약 40%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면전차 현대화 계획이 수립되면서 **독일에서 두 번째 규모의 노면전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뮌헨시의 대중교통의 중심 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br><br>아울러 **1990년 이후 전체 부동산 개발의 약 90%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노**면전차나 지하철 역세권에서의 보행자 통행의 증가는 인근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 질의 5 | **메세슈타츠 리엠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br>**이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함.** |
|---|---|
| **답 변** |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첫번째 조건은 교통이용의 편의성**이라고 생각함. 교통의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장점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적을 것이며 상업지구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없을 것이기 때문임.<br><br>따라서 **이곳의 모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600m 거리 내에 위치한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고, 300m 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가 되어 있음.<br><br>또한 자전거로 이용 촉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음.<br><br>그리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자전거 통근 운동 전개, 자전거 안전 점검 순회 프로그램 실시, 신규 전입자를 위한 특별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 질의 6 | **경기도에서 준비 중인 유휴지 개발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면?** |
|---|---|
| **답 변** | **유휴지 개발사업에 대한 컨셉을 명확히** 했으면 함.<br><br>**거주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개발인지, 아니면 관광지로의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 공간 조성 전부터 확실한 논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br><br>확실한 도시설계의 컨셉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br><br>앞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 북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도시 설계인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에서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 □ 기관방문 사진



정책 설명



질의응답



정책 설명



기념품 전달

## 4 가소메타 시티

**가소메타 시티**

◇ **기관 소개**

- '가소메타 시티'는 원래 1899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사회기반시설로 만든 가스 저장소(4개동)였으나 1986년 도시 전역에 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가동이 중지되었음.
- 오스트리아는 기존 건물의 철거보다는 역사적인 지역유산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재활용 도시재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1년 이벤트홀, 사무공간, 쇼핑몰, 기숙사, 아파트가 어우러진 새로운 '가소메타 시티'를 완성하였음.

◇ **소 재 지** : Guglgasse 8221, 1110 Wien

◇ **연 락 처** : +43-1-7436-430

◇ **홈 페 이 지** : andreas.poeschek@wiener-gasometer.at

## □ 개 요

❍ 일 시 : '23. 5. 13.(토) 13:30 ~ 16:30

❍ 면담자 : Andreas poschek (안드레스 포첵)

❍ 목 적

- 가스저장 시설 등 재활용을 통한 도시 활성화 현장 시찰
-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사업 추진 관련 개선 방안 모색

## □ 주요 논의 내용(질의·답변 등)

| 질의 1 | **가소메타 시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
| 답 변 | 가소메타는 가스저장소를 뜻함. 밖에서 보셨던 **큰 원형기둥 네 개는 1899년 액소가스 저장을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가 만든 가스저장소**였음.<br>당초 가스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건설했으며, 각 가스저장소의 크기는 높이 70미터, 지름 60미터의 원형 기둥임.<br>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건축물의 아름다움으로 빈의 랜드마크였던 이곳은 **1981년 지역 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었음. 1985년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최신 가스계량기 도입과 석탄 가스에서 천연가스로 전환됨에 따라 **1984년에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1986년에 완전히 폐쇄**되었음. |

| 질의 2 | **보통 우리가 가스저장소 하면 그냥 철로 된 통을 연상하게 됨. 당초 처음부터 현재 벽돌 모양과 창문을 갖춘 외관 이였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
|---|---|
| 답 변 | 당초 **가스저장소 설치 당시의 외관 그대로를 현재 유지하고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가소메타 시티를 완성**하였음.<br>비엔나 시내를 보셨겠지만 비엔나 대부분의 건물들은 보통 200~3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음. **비엔나 도시 전체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역사 문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됨. 비록 가스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비엔나 주변 건축물 등 도시 외관과의 조화를 위해 설계 공모를 하였고 독일의 쉼윙이 설계를 하여 역사 도시 비엔나에 걸맞게 붉은 벽돌의 외관을 갖춘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음.<br>지금도 비엔나에서는 개인 부지에 개인이 건물을 건설하더라도 시정부와 많은 협의를 해야 함.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가 가해짐. 또한 자가 소유의 집 수리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

| 질의 3 | **가스저장소가 지금의 가소메타 시티로 조성되었던 과정은?<br>그 당시 비엔나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였는지?** |
|---|---|
| 답 변 | 가스저장시설로의 역할이 다하고, 1995년 비엔나 세계 국제 엑스포가 개최를 앞두고 시에서는 엑스포 부지 활용 등의 이유로 지금의 건물을 해체하려고 하기도 하였음.<br><br>그러나 비엔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건물철거 등의 계획이 취소되었고, **철거보다는 역사적인 지역유산으로 보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음.<br><br>그 이후 **유휴부지의 재활용을 위해 건축가, 도시계획가, 민간 개발업자, 문화재 담당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음.<br><br>결국 **1996년 비엔나 시는 공연장, 사무공간, 아파트, 쇼핑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시티 건설을 목표로 세계적 건축가 4명(장 누벨, 쿠프 히맬브라우, 만프레트 베드론, 빌헬름 홀츠바우어)에게 각각의 프로젝트로 내부 디자인 설계를 요청**하였고,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를 아파트, 기숙사, 쇼핑몰, 주차장, 대형행사장, 예술·문화 캠퍼스 등으로 구성된 가소메타 시티를 2001년 개장**하게 되었음. |

| 질의 4 | **공동주택 중심의 가소메타 시티 건설의 추진 핵심 전략은?** |
|---|---|
| 답 변 | 가소메타 도시재생의 **가장 큰 핵심 전략은 역사 · 문화적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임.<br><br>각 담당 건축가는 가소메타 외관의 모습은 보전하되, 내부공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계획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세웠고 기존 보편적 방식에서 탈피한 현실 맞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br><br>당시 가소메타가 위치한 빈 11구의 짐머링 지역은 전통적인 노동자 구역으로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음.<br><br>빈 시는 **대규모 문화예술시설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문화 및 편입시설 도입을 통해 도시지원 서비스 향상을 의도**하였음. |

| 질의 5 | **상가와 거주시설 혼재로 인한 불편함은 없는지?<br>그리고 쇼핑몰 상권은 외부 인구 유입으로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지?<br>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
| 답 변 | 거주민들의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음. 그 이유는 상업시설과 별도로 구분된 **개인의 사생활 구역을 보장**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어있는 편리한 교통** 때문이라고 생각함. 또한 대부분의 주거시설은 정부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임.<br><br>또한 다양한 내부 편의시설과 더불어 **주변의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상권과 함께 연계되어 있어 상권 이용 유입인구가 많음.** 이 **건물 내에 입점한 가게들 이외에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많은 이용객이 있음. |

| 질의 6 | **가소메타 시티 건설로 인한 효과가 있따면?** |
|---|---|
| 답 변 | 가소메타 시티는 하나의 작은 도시를 표방함.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회복을 목표로 문화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br><br>가소메타 시티는 **도시재생을 통해 유럽 내에서의 공동주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함.** 공동주택과 연계한 **복합용도시설(쇼핑몰 등)은** 하루 1만명이 다녀갈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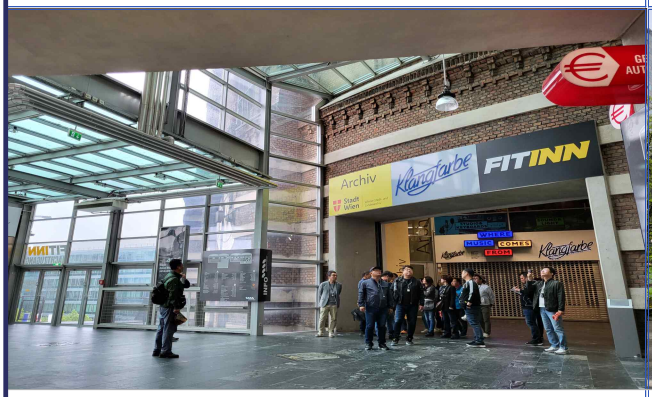
## □ 기관방문 사진



현장 방문



정책 설명




질의 응답




기념 촬영

## 5 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 주의회

### 니더회스터라이히 락트탁 주의회

◇ 기관 소개

- 의회 의장 : Karl Wilfing
- 투표권이 있는 주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56명의 의원 선출

- 주요 업무 : 입법, 주 예산의 결의, 주정부의 업무 감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업무협조 등

- 문화, 농업, 입법, 경제 및 재정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의장의 안건 회부를 통해 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구성됨.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초청을 통해 의견을 경청함. 일반적으로 단순 과반수로 투표함.

-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법률 정보 시스템(RIS)에 게시됨

◇ **소재지** : Landhaus Boulevard 1, 3100 St. Pölten

◇ **연락처** : +43-0-432-742

◇ **홈페이지** : noe-landtag.gv.at

### □ 개 요

❍ 일 시 : ’23. 5. 15.(월) 09:30 ~ 11:00

❍ 면담자 : Christoph kaufmann (크리스토프 카우프만 의원)

❍ 목 적

- 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방안 등 논의

- 양자 간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 의견 교환

## □ 주요 논의 내용(질의·답변 등)

| 질의 1 | **경기도의회 방문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 |
|---|---|
| **답 변** | **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 주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함.<br><br>그리고 오늘 귀국하시는 날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초청요청에 일정까지 조정해 주시면서 응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임.<br><br>경기도의회에서 비엔나를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양 기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만나 뵙기를 청했음.<br><br>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양 기관이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 질의 2 | **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 주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림.** |
|---|---|
| **답 변** | **2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36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니더회스터라이히 락트탁 주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외곽을 감싸고 있고 냉전 시절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접경지대에 위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와 역사·지리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br><br>니더회스터라이히 주는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법적·제도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수도 비엔나의 외곽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를 들어 교육, 교통, 문화, 학술, 첨단기술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br><br>대한민국은 첨단산업, 농업기술, 문화산업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갔으면 함. |

| | |
|---|---|
| **질의 3** | **대한민국의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는 별개의 선거로 구성되고 현재 경기도의회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음. 독일의 의회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더회스터라이히 란드탁 주의회의 경우, 각 당의 협조방식은 어떤지?** |
| **답 변** |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우리 주의회는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자유당, 녹생당 등 다수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br><br>니더회스터라이히 주는 사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1955년 이후 항상 **보수당의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이번 달 있었던 금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당 세력이 2당이 되면서 연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br><br>경기도의회도 양당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 **소수 정당까지 다양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회의를 통한 논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

| | |
|---|---|
| **질의 4** | **경기도의 인구는 약1,400만임. 다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br>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 주의 상황은 어떠한지?** |
| **답 변** | 니더회스터라이히 락트탁 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6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br><br>**오스트리아의 출생률은 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br>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중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정책은 미혼모 출산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보조금 지급, 일자리 보장 등에 있어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임.<br><br>결국 **인구의 증가는 각자 개인의 삶에서 주거, 일자리 등이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가능**하다고 보임.<br><br>그리고 **우리 주의 경우는 인구유입 유인으로 첨단산업 개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질의 5 | 앞서 말씀해 주신 첨단산업 유치 등 노력에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
|---|---|
| 답 변 | 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 주는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ECO Plu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ECO Plus 프로젝트는 산·학·연 연대의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산업을 추진하는 4개 지역을 지정하고 연구와 혁신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인**함.<br><br>크게 4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Krems-건강, ②Tulln-유기농 기초기술, ③ Wr. Neustadt-의료 및 의료 기계, ④Wieselburg-유기농과 농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임.**<br><br>ECO Plus 프로젝트는 2023년 현재 4개 분야 23개 연구소와 13개 대학이 참여하고 참여 인원은 약3,800여 명임. 2004년부터 31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6억 유로를 투자하였음.<br><br>연구 성과로 매년 880만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주 정부의 구조가 변경될 수준으로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주도함.<br><br>Tulln-유기농 기초기술의 경우는 2004년부터 100여 명의 유기농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3개 대학과 관련된 1,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그 결과 유기농 분야의 최고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등댓불 프로젝트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심장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질의 6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음.<br>또한 최첨단 디지털 스마트도시 건설, 예를 들어 교통·치안 통합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음.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간 교류 협력은 양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 답 변 | **대한민국의 스마트 통신 기술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함.<br>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시 차량에 탑승한 승객 수, 그리고 정류장 별 도착 시간 안내 등 최첨단 기술로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롤 모델이라 생각**함. |

| | |
|---|---|
| **질의 7** | **유기농 기술 개발 등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임.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어 농업 부분에도 관심이 많음.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다육식물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 **답 변** | **니더회스터라이히 락트탁 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함.<br>**오스트리아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약 33%를 우리 주에서 생산**함.<br>그러한 이유로 농업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br><br>특히 **최근** 단순한 먹거리뿐 아니라 **친환경 재배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가 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br>경기도에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처럼 우리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로 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만나서 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 | |
|---|---|
| **질의 8** |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방문단을 초청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 앞서 서로 간 논의 되었던 이야기들을 비롯하여 향후 다양한 분양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함.**<br>**특히 경기도의회에는 다양한 해외 지방정부와 친선연맹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있음. 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 주의회와도 향후 계속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임.** |
| **답 변** | **갑작스러운 방문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임.<br>오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경기도의 현황과 주요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음.<br><br>**향후 서로 계속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br>그리고 이번 달에 경기도 용인에서 우리 주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함. 여기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함께 해 주셨으면 함. 오늘 경기도로 돌아가신다고 알고 있음. 향후 경기도에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함. |

## □ 기관방문 사진




질의 응답



기념품 전달



기념 촬영




기념 촬영

## 6 비엔나 인구학연구소

**비엔나 인구학연구소**

◇ **기관 소개**

- 비엔나 인구학연구소는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경제적 결과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인구 통계학과 유럽 다른 국가와의 비교 분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구 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업무 : 7개의 연구 그룹(인구통계학, 건강과 장수, 출산과 가족, 교육환경, 인구동태 및 예측, 경제인구 통계학, 인적 자본 연구)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소재지** : Ignaz Seipel-Platz 2, 1010 Wien

◇ **연락처** : +43-1-51581-7726

◇ **홈페이지** : lsabella.buber-ennser@oeaw.ac.at

## □ 개 요

❍ 일 시 : ’23. 5. 15.(월) 13:30 ~ 15:30

❍ 면담자 : Dr. Isabella Buber-Ennser (이사벨라 부버엔서 박사)

❍ 목 적

- 인구정책 등 주요사업 추진 방향 및 우수사례 비교·연구
-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른 정책 수립 방향 논의

## □ 주요 논의 내용(질의·답변 등)

| | |
|---|---|
| **질의 1** | **먼저 경기도의회 방문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림.**<br>**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br>**유럽 선진국의 인구정책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오늘 방문하게 되었음. 오스트리아의 인구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 **답 변** | 먼저 **우리 기관은 여기 이외에도 룩셈부르크, 비엔나 국립대학교 등 총 3곳을 운영중**으로 **전 세계의 인구현황을 살펴보고 오스트리아의 인구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일을 함.<br><br>오스트리아의 인구는 51년 690만에서 **현재 91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출산율은 1.48명임**. 최근 2015년 시리아 난민, 작년과 올해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최근 전체 인구가 증가하였음.<br><br>과거와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여성의 첫 아이 출산 평균나이(31세)의 증가, 노년층 인구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의 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br><br>인구 관련 분야의 연구에는 **먼저 정확한 통계자료가 기반**이 되어야 함. 따라서 **오스트리아 통계청에서 작성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함.** 통계자료는 최근 시민들의 유행·성향·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함. 그러한 이유로 통계자료 취합·작성·분석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br><br>현재 추계분석에 따르면 **2080년에는 1000만의 인구를 예상하고 있으나 29% 이상이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는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이민자 유입 정책에 대해서도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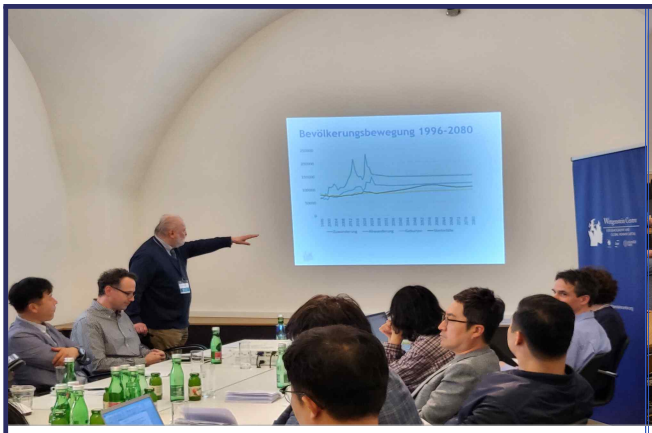
| | |
|---|---|
| **질의 2** |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 고령층 인구비율의 증가, 출산여성의 연령 상향 등은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임.**<br>**앞서 방문했던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임.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민정서상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오스트리아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림.** |
| **답 변** | **최근 서구 사회는 공통적으로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br>그 이유는 **자국민의 출산만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장래 국가 발전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br><br>**이민정책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유력한 대안**일 수 있음. 사실 **오스트리아는 타 국가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함. 그래서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함.**<br><br>그러나 최근 오스트리아는 **이민을 완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동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br>다만 이민정책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하고**, 외국인들을 자국민으로 포용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일자리 제공 정책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혜택이 마련되어야 타 국가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올 수 있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br><br>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이주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빈곤 등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br><br>한국도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민 문턱을 낮추고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 질의 3 | 현재 오스트리아의 인구정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
|---|---|
| 답 변 | 인구정책에는 다양한 방향의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오스트리아는 **가족 형태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br><br>현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결혼신고 없이 출산한 아이의 비율의 전체 출생아의 42%에 이름. 그리고 첫 아이 출산의 경우로만 한정하면 52%가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함.<br><br>따라서 **미혼모나 미혼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모두 가족으로 인정**해 일반적인 **가정과 동등하고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음.<br><br>**두 번째는 출산 가정에 대한 일자리 보장**임.<br>출산으로 인해 휴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이 일하던 직장에서의 지위를 법적(임산부 보호법 등)으로 보장**하고 있음. 직장에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그와 연관된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이 자유롭고 그래야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임.<br><br>대신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br><br>**그 이외에 인구정책 관련 대표 지원정책으로는**<br>**▸디지털 건강관리 수첩 발급 등을 통한 생애주기 관리**<br>**(건강검진·각종 질병 비용 무료)**<br>**▸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br>**▸근로소득과 상관없는 출생·보육 지원금 지급**<br>**▸물가 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금 조정**<br>**▸20시간 단축 노동 보장**<br>**▸487가지 육아휴직 옵션 등이 있음** |

| 질의 4 | 앞서 설명한 기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
| 답 변 | **건강관리 수첩**은 일반 산모수첩과 비슷하지만,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부터 출산 후 자녀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기록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첩**을 말함. 최근 디지털 수첩으로 전환하고 있음. 건강관리 수첩을 통해 **자녀의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 부상에 대해 국가가 무료로 진단하고 치료까지 책임지는 정책**임.<br><br>**육아휴직은 최대 3년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직장에서의 어떠한 관여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 또한 **근로소득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출생·보육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물**가 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현실적인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br><br>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급여의 80%, 비근로자는 하루에 15.38~35.89유로 지원금을 아이 수에 비례해 지급하며,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조금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음.<br><br>또한 육**아휴직 제도 사용 시 사용자의 편의성과 선택의 다양화를 위해 487가지의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가족 구성원 형태, 직장 등 사용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육아휴직 제도를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음. |

| 질의 5 | 오스트리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책이 있다면? |
|---|---|
| 답 변 |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유사하게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br><br>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던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해고 위험이 존재했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 육아휴직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여 487가지 맞춤형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양성평등 추진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 □ 기관방문 사진




정책 설명



질의응답



기념품 전달




기념 촬영

# Ⅴ 시사점 및 정책제언

## < 인구정책 분야 >

### □ 인구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향상”

○ 과거부터 우리 사회는 가족·조직에 대한 헌신 등을 미덕으로 여기고 희생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젊은 층은 본인들의 개인 삶을 중요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시함.**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단기적·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즉 **개인의 삶(직장에서의 만족도, 취미생활 등 여가문화, 복지혜택 등)의 만족도 증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거·일자리·조직문화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출산·육아휴직 사용 관련 기존 직장의 안정성 법적 보장

○ 오스트리아의 사례처럼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임. **아직 우리 사회는 공무원 및 전문직 등 소수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이 안정적이지 못함.**

○ 따라서 법률적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제도 마련은 일반 민간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임. 기업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정책들을 함께 마련해야 함.**

## □ 가족 구성형태의 다양성 인정

❍ 시대가 변화하면서 출생 및 혼인 측면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는 계속 **비혼 동거자 수와 혼외 출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있음. 즉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에 대해 **아이의 건강관리부터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며 일반 가정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음.

❍ **우리 사회도** 최근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비혼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틀이 아닌 **동거 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이혼과 혼외 출산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즉 **과거와 달리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혼외 출산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 안정과 복지혜택 등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한부모 가정은 비전형적 가족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

❍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

## □ 다자녀 가정 확대 정책 실시

❍ **한국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준은 10% 내외**임. 이는 다른 OECD 국가들(15~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증가는 잠재된 출산 동력이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지금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 **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함. 정부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출산장려금, 전기료·수도료·취득세 감면 등 기존의 혜택을 넘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육아품앗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구 여행 시 렌터카 제공, 무상교육 확대 및 지원 등)이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함. 그리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하여 정책개발이 필요함.

## □ 열린 이주민 유입정책 실시

○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열린 이주민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인구의 자연 증가분만으로 국가경제력을 유지할 수 없기에 **노동력 부족에 대한 좋은 대안**일 수 있음.

○ **다만 우리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이주민 유입정책에 아직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여 정책의 추진에 앞서서는 **사전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최근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만연한 상황**임. **이주민 유입에 따른 발생 가능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비책 마련(일자리 및 거주지 지원, 차별 없는 복지혜택,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 및 연구의 내실화

○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 인구연구소, 오스트리의 경우 비엔나 인구학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세계 각구의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조언을 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은 각종 통계자료의 추이를 분석하고 통계학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구소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책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실정임. **외국의 사례처럼 인구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심도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별도 연구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경기연구원 내에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등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맞춤 인구전략 수립이 시급**함.

## □ 성평등 정책 &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확산

❍ **모든 인구정책은 '성평등'을 전제로 실시해야 함.** 성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저 출산 대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적 관념을 탈피하여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에서** 취업 기회 및 임금 등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의 격차가 줄어야 **출산 후 여성이 육아를 하고 남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깰 수 있음.**

❍ **그리고** 성평등 정책과 더불어 출산과 양육은 부부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확산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과 기업 내에서의 문화 및 제도개선이 필수적**임.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기업의 근무 환경 등이 가족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 특색 있는 맞춤형 경기도형 정책 대안 마련

❍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인구교육 및 인구영향 평가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색있는 정책 마련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 마련이 필요**함. 또한 **2024년도부터 편성계획인 인구인지예산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예산심의와 더불어 정책의 효과성이나 성과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함.

## < 균형발전 분야 >

### □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지역·거주지) 만들기 ”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 간 주민의 삶을 균등하게 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시민)의 입장에서 필요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단순 시·군 신청사업은 단체장의 공약사업 또는 장기민원성 사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

### □ 지역 자산의 유지·활용

❍ 유럽의 경우도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낙후되고 쇠퇴 위험이 있는 지역의 재활성화(도시재생)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지역 자산을 유지하여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지역자산이란 그 지역의 고유성·전통성·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복합적인 대상을 이야기함.

❍ 메세슈타츠 리엠의 기존 공항 청사의 사무실, 연회장 활용과 가소메타 시티의 가스저장소 외관 모형 유지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기존 지역자산의 활용은 역사적 의미와 전통성을 부여해 도시의 정체성과 개성을 발휘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그러한 기반 위에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지역자산의 개발이 필요함.

## (참고1) 지역 자산의 유지·활용 사례

**<영국 테이트모던 현대 미술관>** ※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등

### □ 테이트모던 개요

❍ 폐쇄된 화력발전소 건물을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자는 테이트 재단의 발상

❍ 국제설계공모전을 통해 '개조' 방식의 시안을 채택하여 공사 후, 2000년 테이트 모던 개관

○ 20세기 이후의 현대 미술품 전시가 원칙이며 양혜경, 백남준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

○ 강변 위치, 지하철역 도보 거리, 넓은 건물면적 확보 등 장점 보유

### □ 테이트모던 현황

○ 연간 관람객이 600만 명에 이르며,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 등극

○ 국가 보조금에 기대는 것이 아닌,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후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설전 무료 개방

○ 방문객 증가로 증축공사 통해 2016년 뉴 테이트모던으로 거듭남



## (참고2) 지역 자산의 유지·활용 사례

**<핀란드 카펠리 복합문화센터>** ※ 문화정책과 국외출장보고서(2015)

### □ 카펠리 복합문화센터 개요

- ○ 노키아가 전선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공장 이전 후 남은 공간을 사진·영화 등 예술분야 임대사업으로 활용하며 시작
- ○ 사업이 좋은 성과를 보여, 공간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1991년 시 정부가 건물을 인수
  - 도심과 가까우며(차 10분 이내), 넓은 공간(연면적 57,000㎡)이 장점

### □ 공간 특징

- ○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리모델링 후 사용 중
- ○ 시 정부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부담하고, 건물·토지 소유권 확보
- ○ 입주자 임대료로 운영비 충당하며, 운영비에 대한 시 정부의 보조 없음 (부동산 관리회사가 전담 운영)
- ○ 디자인·가구회사, 음반 배급사,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업종 입주 완료

### □ 시사점

- ○ 시 정부에서의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없음에도, 입주 인기 높으며 활기 넘치는 분위기 조성됨
  - 임대사업만으로도 입지, 입주자 범위, 운영 노하우 등에 따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음



## □ 새로운 자산의 개발

❍ **기존 자산의 활용에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자산을 더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함.** 예를 들어 가소메타시티는 하나의 작은 도시를 표방하고 외관의 모습은 보전하되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계획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개발되었음. 그 결과 주거시설, 학교, 각종 편의시설, 상점 등이 더해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향후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투자와 개발이 더해질 필요**가 있음.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유스호스텔, 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운영 중인 사업임.

❍ 그러나 **임진각 평화공원 방문객들이 곤돌라 탑승과 연계한 방문 이외에는 관광객 유치 요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젊**은층의 트렌드를 고려한 깔끔한 숙박시설 조**성과 더불어 **가족 방문객들이 숙박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놀거리·먹을거리(예 : 캠핑장, 서바이벌 게임장, 숲체험, 야외 영화관, 바비큐 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캠프그리브스 사업 개요 >**

○ 위　　치 :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57-1번지 일원 (※ 적십자로 137)
○ 면　　적 : 118,395㎡(역사공원 : 101,774㎡, 문화시설 : 16,621㎡)
○ 기존 자산 : 하사관숙소, 퀀셋막사, 탄약고, 볼링장, 장교클럽 등 64개동
○ 운영 시설
- DMZ체험관 : 연면적 3,325㎡ / 지상 4층
  · 주용도 :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수용정원 240명)
  · 세부시설 : 일반숙소 24실(10인), 인솔교사실(3실), 대강당, 식당 겸 분임토의실 등
- 전시관 : 10개 시설
  ※ 탄약고(2개동), 볼링장, 기획전시관(2개동), 다큐멘타관(4개동), 스튜디오
- 체육관 : 1,336㎡

## □ 생활 SOC 시설 도입 시 다양한 측면의 지속가능성 고려

❍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생활 SOC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환경, 경제, 지역사회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도시 재생과 함께 에너지 감축(신재생에너지 활용) 고려
- [경제] 운영비 부담을 공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임대료 및 자발적 후원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
- [지역사회] 시설물 조성에 그치지 않고 특색있는 테마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거주민이 만족하며 유입인구 및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

❍ 또한 **도심지 혹은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하여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여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교통·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 □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지속적 컨설팅

❍ 메세슈타츠 리엠과 가소메타시티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논의의 과정을 거쳤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건립, 리모델링 등의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경기도는 균형발전 지원센터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지수*를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시·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메뉴얼을 통한 점검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계속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 철도역 밀도, 상·하수도 보급률, 종합병원 병상수, 도시가스 보급률, 1인당 지방소득세, 경제개발비 총액

**붙임 1** **의원별 정책 검토 보고서**

# 정책검토보고서 1

| | |
|---|---|
| 성 명<br>(상임위) | 지미연<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유럽 선진국(독일, 오스트리아)의 인구정책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는 정책개발을 시행하고 있음. 6박 8일 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국외출장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존립과 직결된 현안사항으로 국가·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국민 모두에게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다양한 가족 구성원(동거자, 미혼모 등)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있는 정책이 인상적임. 우리 사회도 사회 흐름의 변화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함.<br>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의 법적보장과 양성평등 정책이 출산율 증가의 선결 조건임. 우리 사회도 법률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비가 필요.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부분의 예산과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현재 추진 중인 형식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실행 가능토록 집행부와 논의할 계획임.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내실 있는 정책대안 및 사업 제시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조직 등 집행부와 협의 |

# 정책검토보고서 2

| | |
|---|---|
| 성 명<br>(상임위) | 김철현<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독일의 인구정책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설립 75주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연방 통계청은 독일의 모든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분석, 정부 정책에도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정부 공식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의 통계청과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인구 수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을 위해 출생과 사망, 혼인신고, 이사 등 다양한 정보를 여러 산하 기관을 통해 취합 검증하여, 주정부 통계청, 중앙정부 통계청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독일 연방 통계청은 현재와 미래의 인구변화 추이,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함.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경기도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만큼 독일 인구 관련 통계자료와 국내의 검증된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정책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지원 |

# 정책검토보고서 3

| | |
|---|---|
| 성 명<br>(상임위) | 이동현<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친환경 도시재생 사례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메세슈타츠 리엠은 기존 공항 부지를 친환경 도시관리 계획을 통해 도시 재생한 사례임. 뮌헨 공항 이전으로 유휴부지가 된 지역을 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공간 및 건축물을 설계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도시 상업지구내 각종 시설들과 전시장, 쇼핑몰 조성으로 거주인구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기업인 등 외부 인구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경기 북부 유휴 지역을 친환경 도시 재생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경기 북부지역의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지원 |

# 정책검토보고서 4

| | |
|---|---|
| 성 명<br>(상임위) | 김근용<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오스트리아의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비엔나 인구학 연구소는 인구에 관한 통계를 낼 때 인구에 교육 수준 등도 같이 통계를 내어 조사함.<br>시대가 변하고 유행들이 변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함.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오스트리아는 미혼모, 미혼부, 일반적인 결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모두 가족으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지원함. 아이가 출생하면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아이의 건강관리부터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짐.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실효성있는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경기도 인구정책에도 반영 추진하고자 함.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률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지원 |

# 정책검토보고서 5

| | |
|---|---|
| 성 명<br>(상임위) | 서정현<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유럽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br>전문적인 연구소를 통한 정책 연구 등에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음을 보고 향후 우리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이주민 이주정책과 그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정책이 인상적이였음. 전통적인 가족사상에 강한 우리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포용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향후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살펴보고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임.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인구정책은 경기도 존립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로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 정책검토보고서 6

| | |
|---|---|
| 성 명<br>(상임위) | 이병숙<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인구정책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경험하여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행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음. 짧은 국외출장 일정이였지만 다른 국가의 정책과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였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결국 각자 개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최근 젊은층은 취업의 어려움, 주택비용 상승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함.<br>개인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업 노력이 필요함.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이외에 1인 가구 증가,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 등 인구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 등 점검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내실 있는 정책대안 및 사업 제시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조직 등 집행부와 협의 |

# 정책검토보고서 7

| | |
|---|---|
| 성 명<br>(상임위) | 이채명<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인구정책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금번 국외출장을 통해 유럽 국가에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과 추진 정책들을 살펴 볼 수 있어 향후 의정활동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br>현지에서 직접 면담하고 현장을 시찰할 수 있는 국외출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미혼모 가정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정책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맞춤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인상적임.<br>우리사회도 미혼모 및 동거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미혼모 출산, 한부모 가구 등에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확대·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임.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산 확보, 조직체계 구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 협조 |

# 정책검토보고서 8

| | |
|---|---|
| 성 명<br>(상임위) | 정경자<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기존 시설 재활용을 통한 도시 활성화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가소메타 시티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만든 가스저장소였으나 1986년 가동이 중지되고 폐쇄됨.<br>그 이후 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건축물의 아름다움으로 지역 문화재 유산으로 보존, 외관을 유지한 상태로 내부 디자인 설계를 변경하여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 재생을 성공시킴.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용도 폐기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역사적인 지역 유산으로 보존과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을 진행하여 새로운 ‘가소메타 시티’로 재탄생시킴.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주한미군 공여지 및 기존 시설물 등을 보존 및 재활용하여 지역 개발 도모,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 지원 |

# 정책검토보고서 9

| | |
|---|---|
| 성 명<br>(상임위) | 정승현<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북부 유휴지 발전 방안 마련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유럽의 국가는 기존 자산의 역사성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자산의 형태를 추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br>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100여년 전에 지어진 가스저장소의 외관 모양을 그대로 두고 내부를 변경하여 완성한 가소메타 시티가 인상적임. 우리의 경우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정책 입안 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신중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과 기존 주변 시설과의 시너지를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통한 국비 등 예산확보 |

# 정책검토보고서 10

| | |
|---|---|
| 성 명<br>(상임위) | 최 민<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 완화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유럽의 경우도 지역 소도시의 쇠퇴가 문제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br>타 국가의 정책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었던 국외출장이였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과거의 유산 존중, 주변과의 조화성, 자연 친화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개발(도시재생 등) 사례가 인상적임.<br>군부대 이전 등 유휴지 개발 시 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균형발전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제3차 균형발전 사업이 충실히 계획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 예정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각종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

# 정책검토보고서 11

| | |
|---|---|
| 성 명<br>(상임위) | 최병선<br>(기획재정위원회) |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 활성화 방안 |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메세슈타츠 리엠, 가소메타 시티 등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익한 국외출장이였음. |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시설건립, 리모델링 등의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인상적임.<br>또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경우 단체장의 공약사항과 민원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선정 과정 및 절차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 |
|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 중첩규제 해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31개 시군의 도민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예산 배분의 타당성 확보 노력 요청 |

**붙임 2** **기재위 국외출장 언론 보도자료**

기호일보

2023년 05월 12일 (금)
종합 03면

# "열린 이주민 유입 정책 인구소멸 해법"

## 내·외국인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
## 남성 육아 휴직 정부서 비용 제공
## 노동자·기업 이익 보호 '일거양득'

### 도의회 기재위, 獨 연방통계청 찾아 '인구감소 문제 해법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감소 위기를 겪다 난민 유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독일을 방문해 이주민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을 점검했다. <사진>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을 방문한 도의회 기재위는 독일 이주민(피난민) 정책을 비롯해 단순 예산지원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미혼모를 비롯한 개인의 삶 만족도를 높이는 인구 정책을 살폈다.

독일 출생률은 1.54명으로 한국(0.78명)에 견줘 2배가량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출생률 탓에 인구 소멸은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 인구는 상반기에 8천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민이 한꺼번에 유입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독일은 당장은 저출산·고령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주민 유입 정책을 적극 펴는 상황이다.

기재위는 독일 100만 인구 증가 동력 중 하나인 이주민 정책에 주목했다. 독일 정부는 독일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한다. 법상 보호와 함께 권리를 누리도록 했는데, 저출생 해결에 함몰됐던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이주 정책으로 전환했다.

연방 관계자는 기재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주민 유입은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경우 가장 좋은 인구 증가 정책"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이번 독일 연방통계청 방문에서 이주민 대책이 단·중·장기로도 탁월한 효과를 볼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현실에 접목할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 예산 지원을 이용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관심을 집중했다. 독일은 모든 기관과 기업에서 남녀 모두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휴직 상태에서 달마다 최고 1천700유로(최대 70%)의 월급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이익도 보호해 '일거양득'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출생' 제도에 대해 도의원들은 많은 공감을 표했다.

미혼모에 대한 독일 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을 비롯해 입양아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공감했다.

지미연 기재위원장은 "출생과 일이 충돌하면 안 된다는 독일 연방 관계자 말처럼 인구 증가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정책으로 인구 문제에서 효과를 보는 독일이 대단하다고 본다. 피난민, 미혼모, 책임정책을 비롯해 경기도가 다각도로 정책 전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 독일 비스바덴=박건 기자 gun@

기호일보



# 도의회 기재위 "모든 가족 구성 형태 받아들여야 인구 정책 효과 있다" 오스트리아 인구 정책 100% 공감

A 박건 기자 | ⊙ 승인 2023.05.22

"인구 정책은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가족 형태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인구 정책도 '가족'에 맞춘다."

오스트리아 인구학 연구소 이사벨라 부버 엔서 박사는 지난 15일 연구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인구 정책 방점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옛부터 가족 구성을 '결혼'을 전제로 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미혼모나 미혼부 같은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를 가족으로 인정해 다른 가정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평등하다고 여긴다.

오스트리아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 형태에 관계 없이 아이의 건강 관리부터 교육까지 전부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 같은 지원 정책은 1950년부터 시작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

대표 정책으로는 ▶건강관리 수첩(건강검진·각종 질병 비용 무료) ▶육아 휴직 최대 3년 ▶물가 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근로에 상관 없는 출생·보육 지원금 ▶20시간 단축 노동 보장 ▶487가지 육아휴직 옵션이다.

건강관리 수첩은 일반 산모수첩과 비슷하지만, 태아와 아기에 대한 건강을 두루 기록해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질병·부상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무료로 진단하고 치료까지 하는 정책이다.

육아 휴직 최대 3년과 근로에 상관 없는 출생·보육 지원금, 물가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정책은 서로 짝임새 있게 맞물려 움직인다. 근로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급여 80%(하루 최대 69유로)를, 비근로자는 하루에 15.38~35.89유로 지원금을 아이 수에 비례에 지급한다.

또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조금을 늘리고, 20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487가지 맞춤형 육아휴직까지 미혼모·미혼부 같은 가족 형태에 관계 없이 선택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을 최근 들어 시작하면서 차츰 나아지긴 하지만,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나쁜 인식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경기도가 지난 2020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부와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수집한 상담 정보 1만여 건을 분류한 결과에서 대상자들은 생계 27.7%, 주거 16.0%, 양육 7.5%, 출산 5.2% 순으로 지원을 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와 정책 개발' 보고서에서도 이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립과 편견, 산후우울증 따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또 임신·출산 과정에서 미성년이라는 한계로 병원비 생활비를 지원받기 어려워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도 오스트리아와 같이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평등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현(민주·시흥5) 부위원장은 "결혼을 전제로 한 전통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나 미혼모·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이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지원하는 방안을 경기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철현(국힘·안양2) 부위원장은 "나쁜 인식 없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지원하는 일이 신선하고 주목할 만했다"며 "시대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도 가족 형태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변화에 맞춰 인구 지원 정책을 다시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이용을 원하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고 공무국외출장 일정 추진 체크리스트

| 일 자 | 계 획 | | 계획 변경여부 |
|---|---|---|---|
| | 시 간 | 일 정 | |
| 5. 9.(화)<br>【1일차】 | 11:05~17:40 | ▶ 인천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 변경없음 |
| 5. 10.(수)<br>【2일차】 | 13:30~16:30 | ▶ **독일연방 인구연구소【공식방문】** | 【방문지 변경】<br>- 현지기관 사정으로 독일연방 통계청으로 대체(10:00~12:00) |
| 5.11.(목)<br>【3일차】 | 10:00~11:30 | ▶ **헤센주 의회【공식방문】** | 【방문지 및 일자 변경】<br>- 현지기관 사정으로 바이에른주의회로 대체(12일, 09~11) |
| 5.12.(금)<br>【4일차】 | 09:30~11:30 | ▶ **메세슈타츠 리엠【공식방문】** | 【방문시간 변경】<br>-바이엔른 주의회(09~11)<br>-메세슈타츠 리엠(14~16) |
| 5.13.(토)<br>【5일차】 | 13:30~17:00 | ▶ **가소메타 시티【현지시찰】** | 변경없음 |
| 5..14.(일)<br>【6일차】 | 09:30~12:00 | ▶ 자체 정담회 | 변경없음 |
| | 14:00~17:30 | ▶ 현지문화시찰 | 변경없음 |
| 5.15.(월)<br>【7일차】 | 09:30~12:00 | ▶ **비엔나 인구학연구소【공식방문】** | 【기관방문 추가로 변경】<br>-니더회스터라이히 락드탁주의회 (09:30~11:00)<br>-비엔나 인구학연구소 (14:00~16:00) |
| | 18:40~ | ▶ 비엔나 공항 출발 | 변경없음 |
| 05.16.(화)<br>【8일차】 | 12:30 | ▶ 인천공항 도착 | 변경없음 |